

제 131 호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1975. 6. 1.

순정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범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③3498)

□강론□



나는 내살을 주겠다

안용기 신부

태양과 공기의 고마움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아마 혜택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

매물된 탄광에 갇힌 광부에게 공기를 주입하는 호스는 더없이 감사할 것이다.

가난한 농부에게 황소 한마리의 선물도 감사하다. 저 임금의 공녀에게 짜장면 몇그릇과 돈 몇푼의 호의는 정조를 허락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아이들에게는 뽕뽕이 몇봉지도 기쁘다.

사랑을 팔아버린 한 젊은 여인이 사장을 헤메고 있다. 희귀한 피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재물이 같은 이 여인 희망이 없는 이 여인 앞에서 갑자기 고귀한 청년이 나타났다. 그는 수혈을 허락했고 그녀는 살아났다. 말 못하는 그녀에게 청년은 청혼을 해 왔다. 뜨거운 눈물이 한없이 그녀의 볼을 적실 뿐이다.

이것은 한번 꾸며본 망상이다. 허나 이 망상이 사실이라면 어떨까? 순간의 선물에서 순간의 감사와 기쁨으로 그치지 않고 감사와 기쁨의 생애를 바칠 것이다.

뱀의 유혹과 과일 두개로 사랑을 팔아 버린 사람! 그 후 사람은 타락했다.

신을 끌고타에서 처형하고 이제는 신의 모상인 자신을 자학한다. 대량학살, 노동의 흑사속에 인간의 물질화, 권력의 횡포, 잔인한 고문, 사랑의 상품화, -

조물주적 착각속에 먹고 살겠다고 자학하는 인류에게 권능한 손이 강림했다. 그 손에 만나가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주님의 살과 피의 잔이 들려있다.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자. 이 큰 은혜에 대해서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지의 마음에서 탈피하는 날에, 정녕 인류는 참 평화를 누릴 수 있으리라. "내가 세인을 살리기 위하여 줄 바 떡을 뜯 내 살이니라. (요한 6:52)

주님! 감사합니다.

<부안천주교 주임신부>

이 주일의 미사

가톨릭 기도서 P 317

(1) 개회식

□**입당송** 나는 내 백성에게 알곡의 친미를 먹여주고 바위 틈의 석청으로 배를렸도다.

(2) 말씀의 전례

□**제1독서** (신명기 8:2-3, 14b-16a)

너와 네 조상들이 모르던 양식을 베키게 주었다.

□**찬가** ①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루살렘아/시온아, 네 하느님 찬양하라/네 성문 자물쇠를 굳게 하시고/네 안의 자손에게 복을 내리셨도다. ②

□**제2독서** (고린토전서 10:16-17 성서 p387)

빵도 하나 몸도 하나이다.

□**성체송가** (기도서 p 318)

□**알렐루야** 알렐루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이니/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 알렐루야.

□**복음** (요한 6:51-59 성서 p218)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신자들의 기도

1. 최후 만찬시 성체성사를 설정하시므로써/온전히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주여! 성체안에서 살아계신 당신과 일치하고/우리 형제들과도 사랑안에 일치하여/당신안에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소서 ①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심장을 창에 찔림으로써 우리에게 인자와 성총을 강물같이 흐르게 하신 주여! 당신의 성총을 힘입어/고심극기와, 경건한 마음으로 자주 영성체 함으로써/사랑의 일치를 이루수 있는 불붙는 사랑으로 당신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은총 주소서 ②

3.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주여! 그들에게 당신의 인내를 보여주시오/고통을 승화시킬수 있는 신심과/당신을 믿는 마음으로/당신안에서 고통을 헤쳐나갈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③

4. 이 세상을 떠난 부모, 형제, 친척들과/잊혀진 이들을 위하여 비오니/그들에게/당신안에서 평화로움을 맛볼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④

(3) 성찬의 전례 □불린 □심찬식

□**영성체송**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살고 나도 그 안에 살리라.

순정이 산책



—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대축일 —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소서.

성체 성사는 사랑의 일치

예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시고 첫 미사를 거행하시어 사도들에게 첫 영성체를 하는 최후 만찬때 서로 사랑하여 일치할 것을 간곡히 부탁하시고, 그 증거물로 성체를 주셨습니다. 그때에 주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실런지를 사도들 앞에 똑똑히 나타내 보여주시는 가장 거룩하고도 열숙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한 인간이 죽음이 임박해서 주위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시하기 위하여, 어떤 기념품이나 무엇인가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납니다. 최후만찬때 주께서는 당신 자신을 봉양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체와 성혈이 영혼과 초자연적 생명, 즉 주님의 모든 것을 하 나도 남김없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없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말씀으로 “모질다 이마름이여” 하면서 많은 사람이 주의 곁을 떠났습니다.

천주님께서 인간이 되신 여기에서 인간에 대한 사랑이 가장 크게 잘 드러난 것입니다. 더욱이 인간이 되신 천주님께서 성체로 나의 피와 살이 되어서 나 개인과 밀접히 하나로 결합하신 여기에는 사랑의 한몸이 되는 기막히는 사랑을 우리는 피부로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성체를 이루실 때 주의 마음가지심은 이랬을 것입니다. “나를 믿는자들이여! 너희가 만일 나를 의심하면 너희를 위하여 내 몸과 피를, 즉 내 자신을 온전히 너희 음식으로 주는 이 사랑의 성체성사를 보라! 이런 사랑의 보증도 미덥지 않다는 말인가?” 하시면서 열렬히 뜨겁게 속삭이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며 활동하려면 하루에 세끼니를 먹고 양분을 섭취하여야만 합니다. 우리 영신도 식량이 필요합니다. 영신에 필요한 음식을 못먹으면 우리가 영세받던 날 받은 새 생명은 굶어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성체가 어떻게 우리의 살과 피가 되겠습니까? 어떤 고등학교 화학시간에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된다는 성체도리를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며 화학 법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한가톨릭 소녀가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더군다나 화학변화로 그렇다니요? 선생님 오늘 아침에 잡수시고 오신 빵과 포도주는 선생님의 안에서 영양작용을 통해서 된다면 자연의 창조자시며 통치자이신 천주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그런 영양작용이나 자연작용을 거치지 않고 직접 빵과 포도주를 당신의 살과 피로 변화시키실수 없다는 것은 무슨 이유란 말입니까?” 참으로 야무진 대답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내몸에 들어가 내몸의 한 부분으로 흡수하여 버리듯이 이 성체도 피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변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성체로 계시는 것은 마치 우리 영혼이 우리 육신안에 있는 것 처럼 비슷하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감각할만한 대상이 있어야 보다 더욱 잘 알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체야말로 땅위에 사는 인간들의 신앙생활의 제일차적인 대상입니다. 우리는 우상숭배가도 아닙니다. 천주님께서 친히 정하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유형한 표적으로 실제 현재도 나와 함께 살아가시며, 보살피신다는 증거물인 성체를 우리는 피부로 생생하게 느끼며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치에 당연합니까?
성체성사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나와 의 관계, 이것은 이 세상살이 중에서도 천국 생활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연을 초자연 생명으로 접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또는 포도나무가지가 줄기에서 자기 생명을 지탱해 나가는 것과도 같다고 주께서 일러 주셨습니다.

성체성사의 주목적은 신자들의 공동체로서의 한 가족으로서의 결합과 영적 성장을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자기 몸같이 아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체의 생명력입니다. 그것은 성체성사의 사랑으로써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즉 내가 너희와 실제로 결합하여 한몸이 된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지만 너희가 내제가 되는 줄을 모든이가 알수 있다고 못박아 놓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포도 줄기에서 떨어져간 포도가지처럼 찬란한 태양빛이신 주님이 비칠때는 이대 시들어 버리고 활활 불타는 아궁이 속으로 던져 버려지려니 거기는 전치 통곡함이 있으리라고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포도줄기에 붙어 있으면서 똑같은 생명을 나눠 받은 포도가지가 그 가지끼리 서로 통할 수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성체성사로 내 생명이 주님의 생명과 하나로 결합되어 서로 사랑이 통할 수 있다면서 그래 그 똑같은 성체로 결합된 내 형제와 나는 서로 사랑이 통할 수 없다면 그런 모순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 밤낮 미워하고 헐뜯는 그 사람안에 성체를 통해서 살고 피시는 예수님을 헐뜯는것이라면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놀라시겠습니까?

성체성사로 서로 한 몸을 이루는 우리 형제들, 서로 사랑하고 일치될 이루어야 하겠습니까.

현대 광고사
*아크릴. 각종간판. 아취. 셀크인쇄

현대 DP사
*칼라후백 사진. 카메라수리

송 흥 섭(토마스)
전화 9431
남남극장과 천복신문사 네거리 중간

◎교형 여러분의 집◎

현대 사진관

김 낙 준(요한)

오거리 한전 옆
전화 6289

K.S사자표 페인트 대리점
반도카슈 대리점
포구제로 각종한지
실크 슬입벽지 파이텍스

대동 지를 상사

전주시 풍남동 1가17번지
전화 5986
임 정 원(도민교)

□양 지 쪽□

성체는 생명의 떡이시다

김 영 구 신부

“살아계신 성부 나를 보내셨음과 같이, 나도 성부를 인하여 살고, 나를 먹는 자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오늘 복음 성경의 말씀입니다. 즉 “나는 나의 성부의 생명을 너희에게 통해 주기를 원하노라. 나는 나의 존재와, 네 생명과 모든것을 성부께 받았으며, 나는 너를 위하여만이 살기를 원하노라. 너희도 모든것을 나에게서 받았으므로 나를 위하여만이 살기를 간절히 바라노라. 너희들의 육신의 생명이 음식으로 지탱되고 성장되듯이, 나는 너희 영혼의 음식이 되어 그 생명을 유지케하고 완성시키고저 하노라. 그 영혼의 생명을 바로 나이다. 그러므로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즉시 생명으로 나아가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활한 떡이요, 생명의 떡이므로 그 은혜는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자에게는 초자연적인 영생에의 새벽이로 유대아 백성은 사막에서 만나(섞어 없어지는 음식)를 먹었느니라. 그러나 나는 항상다 언제나 필요한 떡이로다. 왜냐하면 너희는 이 떡을 먹지않고서는 너희안에 생명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예수의 말씀이 이러하니, 예수께서 제대상에 머무르심은 우리가 당신을 조배하고, 성부께 무한한 보속으로써 제헌하기 위한 것 뿐 아니라, 또한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써, 천상의 떡을 먹고 생명을 가지게 하기 위함인것이다.

우리는 영성체함으로써 현세에서는 성종의 생명을 누리고 후세에서는 영광의 생명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성체성사는 무엇보다도 예수의 수난을 기념하는 성사이다. 밀떡과 포도주가 제헌되는 곳에서는, 또 축성된 호스며아(성체)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희생이 회상된다. “나를 기억하기 위하여 이를 행하라.” 이 성사를 세우신 것은 바로 죽으시기 전날 저녁이였으니 이는 마치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당신 사랑의 증거물과도 같다. 그러나 예수의 수난과 부활은 밀떡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어느 의미에서는 수난의 영화로운 마침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오주의 부활의 기념도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성사에서 받는 것은 예수의 몸과 피이다. 그러므로 성체는 성자의 강생을 의미하고, 또 강생의 현의도 포함된다. 또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도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멸치않는 천주의 생명으로써 제대상에 제신다 이러한 일체의 보배가 이 조그마한 호스며아안에 포함되어 있어 영성체로써 우리도 영혼에 나누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성체 할때에 그리스도는 그 모든 사업의 현의를 그 살과 피와 함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영성체는 신자의 행위중의 극치이다.

(교동 정양소)

요십이 (97) 김병오



※ 신자들의 건강 센터 ※
 ※ 신자들의 집 ※
성심당 한약방
대지사진관(2층)
 이 상 법(필노리아노)
 육교빌 구 북부배차장 옆
 전화 ② 6544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 울태(베드로)
 ●육교옆 중앙 시장통
 (전화 ②4577)

※집단장 청부. 문의 환영※
금강 페인트사
 <고급도로. 방수액. 후판등>
 전화 ②0876 김 데레사
 소방서 북편. 결핵협회 옆

☆교우들의 집☆
영명 T.V 수리센터
 ■텔레비전, 전축, 라디오
 중고품 매매, 판매, 수리
 ■출장비 무료
 유 원 상(돈보스코)
 전주 동부시장동 (전화 ②9138)

※ 교회 여러분의 집 ※
스타 사진관
 장 남 수(바오로)
 ● 오거리동, 동아여관 앞
 전화 ② 6094

*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입금님 찾집
 전주 전신 전화국 앞
 전화 ② 5013
 김 원 준(야고버)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공
사
항

1. 그리스도 공동체 묵상회 : 1975. 6. 2(월) - 4(수) (2박3일) 전주 가톨릭센터에서 회비 : 2,500원
2. 제 1차 여성 율레아 (6월8일) 가톨릭센터에서 오전 10시
3. 조국을 위한 월요 기도회 : 6월 2일 오후 8시. 가톨릭센터에서
신, 구교 합동인 월요 기도회에 많은 젊은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4. 중·고등학생 치명타 원고 모집 : 학생 회원들의 많은 원고를 바랍니다.
5. 전남, 전북, 제주 연합 사제단 친선대회 : 6월 6일 광주 대전신학대학에서

(중앙)

전화 ③2651
③3874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김영진

맞이바다 8시

1. 사도회 율레회 : 공식 미사후
2. 성심 부녀회 : 6월 6일 어머니 미사후
3. 학생회 율레회 : 공식 미사후
4. 6월은 성심 성월이오니 많은 은혜 구합니다

(복자)

전화 ③ 5238

주임 신부 오기훈
사도 회장 조성호

1. 6월은 성심 성월
매일 미사후 합동 성심 성월 바치겠습니다
2. 사도회 율레회 : 오늘 저녁
3. 복자 부녀회 : 공식 미사후
4. 성우회 : 다음주 공식 미사후, 참석 요망
5. 교무금을 납부 합시다
*성미 3말 누계 359.5되

(노송동)

전화 ③7032

주임 신부 함승철
사도 회장 조해형

1. 둔율동 성당 교우들의 노송 신축 헌금 오늘 사도회 임원 참석
2. 신용조합 율레회 : 다음주
3. 검진 성사 받으실 교우는 사무실 접수 바람
4. 성당 신축 헌금에 감사 드립니다
중앙 : 39,231(중앙, 복자 교우감실 50만원 기증 약속)
전동 : 19,300원, 복자 : 5,000원
서학 : 6,000원, 덕진 : 23,250원
대전 신학대학 전주교구 신학생 일동 : 10,000원
이현영, 이경화, 김은택 : 각 3천원
김경옥 : 2천원 기타 : 3,500원
주계 : 117,281원 누계 3,224,717원
①신축 성미 주계 : 5되 누계 : 259말

(서학동)

전화 ③ 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이거영

1. 오늘은 애령회비 납부 주일 (현재 기금 11,470원)
2. 사도회 율레회 : 밤 8시 미사후
3. 애령회 : 공식 미사후. 간부 전원 참석 요망
4. 예비자 및 유아세례 : 오늘 오후 2시
적어도 30분전에 성당에 도착 요망
5. 성당 담장, 대문 개수에 신청치 않으신 분은 학생까지 모두 정성껏 신입 바람
6. 공동체 묵상회에 참가 희망자는 부녀부장 장 세시리, 아 차장 한 글라라에게 신청 바람
7. 학생회 : 공식 미사후

(전동)

전화 ③ 3222

주임 신부 김환철
사도 회장 이현재

- *6월은 성당 거림 회갑 축하 준비의 달*
1. 사도회 율레회 : 저녁 미사후
 2. 성우회 율레회 : 1시 미사후 윤 신부님 묘지 참배
 3. 6월은 교무금, 봉헌금 완납의 달입니다
 4. 어린이 미사 시간 변경 (6월 8일 부터)
오후 3-4시(교리) 4-5시(미사)
*61주년 성미 : 7말 누계 8가마 6말

금주의 숭정이 은인께 감사드립니다

김 남수 (벨라도) 세종당 한약방 전화 ③ 2277

(덕진)

전화 ③ 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종환

1. 그리스도 공동체 묵상회 각반, 공소에서 참석 요망
2. 팔복동 공업단지 미사 : 6. 2일 오전 11시
전주 제지사택 내
3. 신자 재 교육, 예비자 교리 : <토> 저녁 8시 30분
4. 보미사단 조직 : 6월 1일 오후 8시까지 접수 바람
5. 신용조합 임원회 : 6. 5일 오후 8시
6. 신용조합 율레회 : 다음주 공식 미사후
7. 애령회 성미 11되 2홀 성금 : 3,640원

* 각 본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본당	소식	봉헌금	지구	본당	소식	봉헌금
제 1 지구	고창 김부신배인유정	사도회 임시 총회	2,965원	제 3 지구	주현동 창인동 황	사도회 율레회	38,405원
		사도회 율레회	19,525원			사도회 율레회	41,910원
제 2 지구	대운울명중합	본당 비품 만들기 위한 바자회	5,750원	제 4 지구	중노송동 덕부서학동 전	사도회 율레회	52,141원
		사도회 율레회	2,400원			전진성사 받으실 분 접수 바람	19,792원
		신용조합 설립 교육	15,020원			보미사단 조직	11,511원
제 3 지구	고금여 산산산	사도회, 성심회, 학생회	32,340원	제 5 지구	남무장진순	사도회 율레회	17,555원
		사도회	23,365원			예비자 및 유아 세례	11,926원
		사도회 요셉회	14,210원			사도회 율레회	47,861원
			3,120원			두 여인 성서 기증	6,140원
			12,365원				